PBC 미주평화신문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6500 Fax (718) 762-5108

평화신문

제1378호 / 연중 제21주일 THE PEACE TIMES WEEKLY (미주판) 2016년 8월 21일

마지막 정성을…
중앙 MEMORIAL 장의사
Toll Free: 888-353-2424
미주 최초의 한인공인 장례식,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고인에 대한 사랑, 정성, 예의는 중앙 장의사의 약속입니다.
뉴 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50년 희년 맞아 새롭게 거듭나는 공동체 되자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성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감사미사 봉헌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성당 설립 50주년 감사미사 봉헌 후 사제단이 코딜리오네 대주교, 이성효 주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민 역사 속 기쁨·해방의 50년 맞아
음악회·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 펼쳐
거룩한 순교자 신앙 유산 보존계승해
영적 성장과 일치된 교회로 나아가야

【캘리포니아】 북미주 최초 가톨릭 한인 공동체인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성당(주임 황현 율리오 신부)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 및 감사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2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감사미사는 지난 13일(토) 오전 10시 30분 살바토레 죠셉 코딜리오네 대주교(샌프란시스코 교구장)와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총대리), 황현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또한 사제, 수도자, 인근 지역 신자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인사, 주민들이 함께해 미주 가톨릭 한인 공동체 설립 5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코딜리오네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미주지역 첫 한인공동체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샌프란시스코에서 거행하게 됨을 축복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된 한국의 가톨릭 신앙의 뿌리에 대해 설명했다. "불과 한 세기도 되지 않은 기간에 만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죽음이 누룩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교회는 이 귀중한 유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물봉헌 순서에서 이민규 사목회장은 그동안 전 신자들이 봉헌해 온 50주년 기념 묵주기도 100만 단을 영적예물로 봉헌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 한인공동체의 50년 역사를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었고, 전임 사목회장들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으며 에드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특별 기념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이성효 주교는 축사에서 "50년을 뜻하는 성경말씀처럼 이제 공동체는 기쁨과 해방의 씨앗이 싹 텄다"며 50주년에 걸맞게 영적으로도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창미사로 거행된 감사미사를 북가주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해 더욱 성대했다. 황현 신부는 "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낯선 이 땅에서 한인가톨릭 교회를 성장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면서 하느님 안에 서로 일치하여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8월 6일(토) 개막해 3주 동안 전시 중인 역사사진 전시회는 지난 50년간 공동체 모습의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해, 사진을 통한 역사체험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같은 날 저녁, 막을 올린 기념 음악회는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북가주 지역 한인성당의 연합 성가대(지휘 장 스텔라)가 연주한 이번 음악회의 정점이었던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는 800석 대성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대관식 미사의 아름다운 기교를 맛보게 했다.

연합성가대는 이외에도 경복궁 타령 등 반세기의 세월에도 놓지 않는 한인만의 정서를 노래로 풀어냈고 연합성가대의 남성합창단(지휘 이재우)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 등 다수의 곡을 절제된 남성들만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힘찬 에너지를 조화시켜 큰 감동을 안겼다. 특별 게스트 첼리스 보컬 앙상블(지휘 최현정)은 중세 그레고리안 성가의 멜로디를 그대로 전하는 유비 카리타스(Ubi Caritas)와 2개의 다른 합창으로 연주하는 교창음악 프란츠 비블의 아베마리아 등으로 50주년 기념음악회를 돋보이게 했으며, 바리톤 강주원은 파워풀한 목소리로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해 음악회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음 날인 8월 7일(일) 수원교구 원로사제이자 샌프란시스코 성당 3대 주임신부이었던 한상호 신부가 샌프란시스코 한인공동체의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해보는 "우리의 순례여정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강의했다.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 성당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왼쪽부터 이성효 주교, 살바토레 코딜리오네 대주교, 황현 신부).

한편, 이민 초기 상당수의 샌프란시스코 지역 가톨릭 신자들은 개별적으로 미국 본당에 적을 두고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각국 고유 언어로 미사를 봉헌하게 됨에 따라 옥타비아 본당 구츨로 신부가 한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교구장 죠셉 메커컨 대주교에게 청원했다. 이에 1966년 4월 27일 교구장에게 정식 인가를 받아 북미주 최초 가톨릭 한인 공동체인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성당이 탄생되었다.

기사/사진 제공: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본당 홍보분과

기도는 주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것

뉴욕 CLC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 가져

【뉴욕】 뉴욕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NY KCLC, 의장 김은애 크리스티나)는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을 지난 10일(수)부터 14일(일)까지 뉴저지 모리스 타운에 있는 로욜라 피정의 집에서 열었다.

"사랑의 신비"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은 김형철 시메온 신부(한국 예수회, 버클리대 영성신학 수학 중)가 이끌었고, 49명이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피정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고, 처음으로 침묵피정을 접하는 신자들도 많았지만 김 신부의 기도 안내를 따라가며 침묵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체험하며 행복해 했다.

김 신부는 '침묵은 온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기 위해 다른 생각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이냐시오식 기도는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성경말씀을 통하여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이냐시오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정을 시작했다.

김 신부는 내가 기도한다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기도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많은 부분을 여백으로 하느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신수련에 의한 묵상, 관상기도를 우리가 이미 매일 삶 속에서 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예로 들며 하느님과의 만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피정자들은 오전, 오후에 가진 두 번의 강의에서 영신수련의 흐름에 따라 주어지는 성경 말씀과 기도요점에 따라 묵상과 관상기도를 하며 창조와 구원에 담긴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신부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나태주, 풀꽃) 시를 들려주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모두 소중하게 간직하여 자세히 보면 엄청난 보화로 다가올 것이라며 피정을 마무리했다.

뉴욕 그리스도 생활 공동체가 개최한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김형철 신부(앞줄 가운데)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무더위 속에서도 침묵하며 피정에 몰입했던 참가자들은 김 신부가 이냐시오식 묵상, 관상기도를 쉽게 풀이해 주어 기도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고, 기도와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김은애 의장은 이냐시오 기도를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가을부터 시작되는 pre-CLC에 초대했다.

기사/사진 제공: 유상현 스테파노
강석주 바오로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제72차 미동북부 ME부부주말
(미주 한인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부부의 행복을 도와주는 주말입니다."
"여러분을 신혼으로 초대합니다."

- 대상 : 부부들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7시- 9월 5일 (월) 오후 5시
- 장소 : Wyndham Garden Hotel (NJ Newark 공항 앞)

문의 및 신청 : 각 본당 ME대표부부 혹은, 신 세바스챤, 세라피나 부부 TEL: (646) 772-3024 / (516) 996-9038 E-Mail: Sungho.shin@yahoo.com